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경로모형 분석

서영숙,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A Path Model Analysis of the Suicidal ideation in Middle-aged males

Young-sook Seo, Chu-young Jeong*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만44-64세 중년남성 236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8년 4월 11일부터 6월 01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21.0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지수는 RMSEA .05, GFI .99, AGFI .95, NFI .98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의 스트레스는 우울, 음주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기초하여 자살생각을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자살생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tness of a Path model to represent relation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iddle-aged males. The participants were 236 middle-aged mal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1 to June 1, 2018.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in PASW Ver. 21.0, and AMOS Ver. 18.0 (a statis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rogram), fitness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model were RMSEA 0.05, GFI 0.98, AGFI 0.95, and NFI 0.98. The major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drinking, and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econd, stress and social support both directly affected suicidal ideation. Results also suggested depressio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We suggest a program be devised to reduce suicidal ideation by middle-aged males. It is hoped our result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Keywords : Drinking, Middle-aged male, Stress,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 남자 69세, 여자 76세에 비해

2016년 남자 79.3세, 여자 85.5세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중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1]. 한편,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연령대별 자살률은 20-30대에 비해 40-50대의 중년이 높으며, 중년 자살률의 성비 차는 여성이 32.1%, 남성이 41.6%로 보고되어[1], 중년남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대책이 요

*Corresponding Author : Chu-Young Jeong(College of Daegu-Health)

Tel: +82-53-320-1465 email: jcy0902@dhc.ac.kr

Received October 16, 2018

Revised November 14, 2018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구된다.

중년기의 남성은 성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적 노화와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가 동반되며, 가정에서는 성장하는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부모의 부양 및 자신의 노후준비 등 경제적 부담감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2]. 또한 우리사회의 경제성장 둔화, 경기불황으로 직장에서는 조기퇴직, 실직, 승진누락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를 경험하면서[3][4],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양능력 j에 대한 부담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시에 겪고 있다[3][4][5].

이처럼, 중년남성은 생애 주기변화와 다양한 위기상황을 당면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중년남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참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한 억제 성향의 우리사회 남성성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알코올 등의 물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7][8]. 특히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중년기의 우울을 가중시키고, 자기존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자살생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9]. 한편 우리사회에서 우울증은 7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이 심한 중년남성의 자살률이 중년여성이 비해 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1]. 이처럼 중년남성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은 음주, 자살생각과 관련성 [10]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숨겨진 우울증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우울, 음주와 자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11]. 한편, 자살률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자살관련 변수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청소년[12][13], 대학생[14][15], 여성노인[16]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7][18]는 일부 시도되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살생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정도, 종교여부,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소득만족도, 음주여부, 흡연여부, 수면만족도, 만성질환 유무,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19]와 스트레스, 우울 등 정서적 변수[20],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등의 사회심리적 변수[14][16]등의 관련변수를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위험요인 중에서 음주와 흡연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긴장감 완화 및 각성시키는 중독성 물질로서, 자살생각과 같은 충동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위험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20].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자신의 기분을 감추고,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음주율이 높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와 우울, 자살생각의 관련요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대부분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년남성은 우울과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좋을수록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12][16][21],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 직·간접적 작용한다.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일관된 변수로 보고되어 [14][16][20][22], 우울과 자살생각은 관련성이 높은 변수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음주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영향변수로 보고되어, 우울과 자살생각의 직·간접적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우울은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사회적 변수, 정서적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인과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이에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변수들과 중년남성의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자료간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관련변수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U시와 K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44-64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경로모형 표본크기는 최소 150개정도가 권장수준이며, 이상적인 표본크기는 200-400명 정도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편의표집 대상자의 탈락을 총26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한 252부 중 불성실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23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1일부터 6월 0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2.3.1.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Kovacs와 Weissman[23]가 개발한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을 Park과 Shin[24]이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그렇다’ 3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2 독립변수

2.3.2.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학력정도, 종교, 배우자, 직업,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흡연, 만성질환 등을 포함하였고, 연령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였고, 학력정도는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는 미혼, 배우자 사망, 별거, 이혼한 경우는 ‘없다’로 하였다. 경제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 동안의 음주경험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총점을 사용하여, 16점 이상일 경우 ‘예’, ‘아니오’로 범주화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자는 ‘유’,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는 ‘무’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1개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유’, 비 진단은 ‘무’로 구분하였다.

2.3.2.2 심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는 스트레스를 포함하였으며, 스트레스는 Yim 등[25]이 개발한 한국어판 스트레스(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K)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85이었다.

2.3.2.3 사회적 변수

사회적 변수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 [26]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도구를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2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3.2.4 정서적 변수

정서적 변수는 우울을 포함하였으며, 우울은 Radloff [27]가 개발한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도구를 Cho 등[28]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CES-D 한국어판 우울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2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그렇다’ 3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PASW 21.0과 AMOS 18.0 program을 이

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제변수의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정규성 검증,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부합지수로 χ^2 -test로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6)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Age	≤49	69	29.2
	50-59	128	54.3
	≥60	39	16.5
Education	≤High School	71	30.1
	≥College	165	69.9
Religion	Have	111	47.0
	Have not	125	53.0
Marriage	Have	215	91.1
	Have not(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21	8.9
Economic condition	Good	57	24.2
	Moderate	109	46.2
	Poor	70	29.7
Occupation	Employed	207	87.7
	Unemployed	29	12.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1	42.8
	Moderate	116	49.2
	Poor	19	8.1
Drinking	Yes(≥16)	110	46.6
	No(≤15)	126	53.4
Smoking	Yes	111	47.0
	No	125	53.0
Chronic disease	Yes	143	60.6
	No	93	39.4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50대’가 54.3%이었고, 학력정도는 ‘전문대졸 이상’이 69.9%이며, 배우자는 ‘있다’가 91.1%, 직업은 ‘있다’가 87.7%, 경제상태는 ‘보통’이 46.2%,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9.2%, 만성질환은 ‘유’가 60.6%, 음주는 ‘무’

가 53.4%로 흡연은 ‘무’가 53.0%로 나타났다[Table 1].

4.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왜도(skewness) 절대값 3이하와 첨도(kurtosis) 값이 10이하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또한 변수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3.07점/5점, 사회적 지지는 2.71점/5점, 우울은 1.50점/3점, 음주는 0.54점/1점, 자살생각은 1.50점/3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은 자살생각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변수의 경로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의 검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67-.90로 모두 0.1 이상이고, 1.0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1-1.4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4.3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본 연구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χ^2/df 값은 25.37($p<.001$)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χ^2/df 값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모형의 적합지수를 검증한 결과, RMSEA .05), GFI .99, AGFI .96, NFI .99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우울($C.R.=2.12, p=.018$), 음주($C.R.=6.10, p<.001$)와 자살생각($C.R.=2.51, p=.012$)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C.R.=-5.67, p<.001$)과 자살생각($C.R.=-6.92,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또한 우울은 음주($C.R.=1.81, p=.071$)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살생각($C.R.=5.17, p<.001$)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주는 자살생각($C.R.=1.83, p=.067$)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연구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우울 .13($p<.001$), 음주 .37($p<.001$), 자살생각 .24($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이 매

개되었을 경우 .15(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39(p<.001)로 상승되었다[Fig. 1].

사회적 지지는 우울 -.21(p<.001), 자살생각 -.24(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우울이 매개되었을 경우 .13(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57(p<.001)로 상승되었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 .61(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직접효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이 확인되었고, 우울의 직접효과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음주의 직접효과는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6)

Variables	X ₁	X ₂	X ₃	X ₄	Y
	r (p) or M±SD				
X ₂	-.44 (.001)				
X ₃	.29 (.001)	-.40 (.001)			
X ₄	.40 (.001)	-.17 (.009)	.22 (.001)		
Y	.42 (.001)	-.56 (.001)	.51 (.001)	.28 (.001)	
Total	3.07±0.50	2.71±0.74	1.50±0.45	0.54±0.49	1.50±0.91
Potential range	1-5	1-5	0-3	0-1	0-3
Skewness	0.13	0.32	0.43	0.17	0.31
Kurtosis	0.52	0.65	0.16	1.99	1.17

X₁=Stress; X₂=Social support; X₃=Depression; X₄=Drinking; Y=Suicidal ideation.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s (N=236)

Goodness	χ^2/df (p)	RMSEA	GFI	AGFI	NFI
Hypothetical path model	25.37 (<.001)	.05	.99	.95	.98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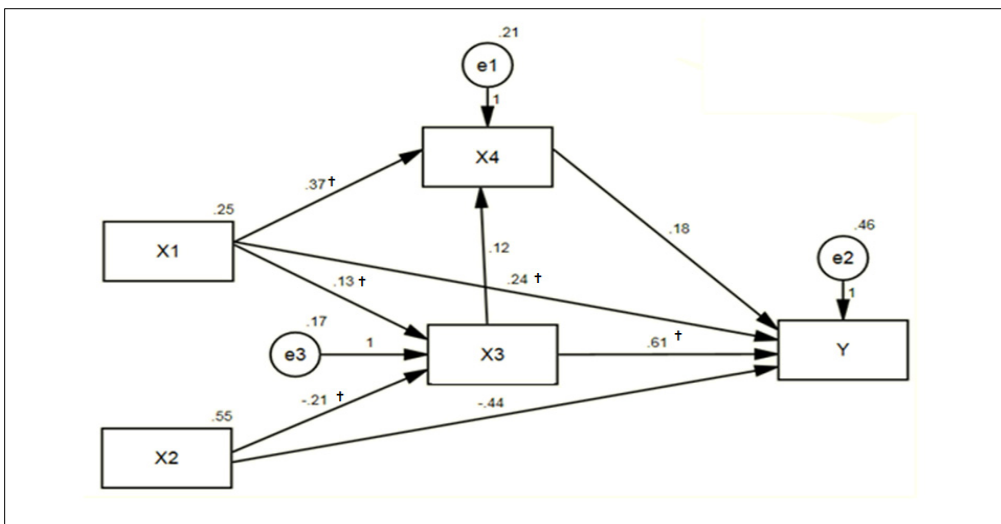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X₁=Stress; X₂=Social support; X₃=Depression; X₄=Drinking; Y=Suicidal ideation; † p<.001.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36)

Parameter	CR (<i>p</i>)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β		
X ₁ → X ₃	2.12 (.018)	.13 [†]		.17 [†]
X ₁ → X ₄	6.10 (.001)	.37 [†]	.02	.37 [†]
X ₁ → Y	2.51 (.012)	.24 [†]	.15 [†]	.39 [†]
X ₂ → X ₃	-5.67 (.001)	-.21 [†]		-.21 [†]
X ₂ → Y	-6.92 (.001)	-.24 [†]	-.13 [†]	-.44 [†]
X ₃ → X ₄	1.81 (.071)	.12		.12
X ₃ → Y	5.17 (.001)	.61 [†]		.61 [†]
X ₄ → Y	1.83 (.067)	.18		.18

X₁=Stress; X₂=Social support; X₃=Depression; X₄=Drinking; Y=Suicidal ideation; CR=critical ration; † *p*<.001.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음주 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과관계와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중년남성의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모형에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이었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수록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스트레스[17][29]와 사회적 지지[16], 우울[14][20][30]이 자살생각의 예측변수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한편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Park [30]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며, 추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준 변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이었으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16][17][2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 부분매개효과와 동시에 자살생각의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대상자의 우울은 자살생각에 중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스트레스가 주요한 변수로 보고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우울과 자살행동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결과에서 자살생각 총 효과를 비교해봤을 때 스트레스가 우울에 비해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중년남성의 현실도피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와는 다른 중년기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중년기는 생산성이 중요한 발달 과업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남성은 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성기능 저하 등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는 독립하는 시기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자신의 노후준비, 부모세대의 부양 등 사회적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년남성의 성호르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은 중년여성에 비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20]. 가장으로서 남성은 자녀의 취업문제와 결혼연령 증가로 인한 양육 부담감과 노부모 부양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한편, 중년기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시기이지만,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시대 흐름에 따른 업무변화로 적응문제와 동료와 후배들 간의 경쟁, 고용불안정 등 직장 내 위기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가중된다[17][29].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우 우울과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1]와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중년남성의 우울[14]과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16]이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인적자원을 의미하며, 사회적 인적관계 및, 유대감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타인의 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이 우울하거나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사회적 인적관계가 풍부할수록 유대감이 좋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12][16][21] 우울과 자살생각의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데, 중년남성의 경우 생산성의 발달과업이 중요하므로 일터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에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변수가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기여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11][20][29]에서 자살생각의 강력한 단일 요인으로 보고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과 무력감, 무가치감 등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한편 중년여성은 중년남성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높았으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 중년남성이 중년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높게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은 다른 나라 남성에 비해 울적한 기분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참고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높다[6][7].

이처럼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는 숨겨진 우울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개입방안[29]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우울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고려한 다각적인 중재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가족과 주변인, 우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와 우울은 자살생각에 강력한 예측변수이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중년남성의 우울감을 위한 전략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모형구축을 통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중년남성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년남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생각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으로 성격 유형 및 가족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토대로 경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의 예측변수들이 자살생각에 직접효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효과와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중년남성의 자살생각 예측을 위한 경로모형은 간명하고 적합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기초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건강관리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의 요인을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2016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6

- [cited 2018 September 29].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6347&ord=5>.
- [2] Y. A. Song,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actors and drinking/smoking among middle-aged me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0, no. 1, pp. 13-25, 2013.
- [3] C. Parish, "Dramatic rise in suicide rate for middle-aged men", *Mental Health Practice*, vol. 16, no. 5, pp. 5, 2013.
DOI: <http://dx.doi.org/10.7748/mhp2013.07.16.10.5.s7>
- [4] E. H. Seo, E. Y. Kim, E. Y. Jung, "The effects of climacteric symptoms and hardness on mid-life cri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454-46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454>
- [5] M. W. Lee, H. J. Park, "A study on late-onset of hypogonadism, erectile dys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male worker", *J. Korean. Aca. Adult Nurs.* vol. 25, pp. 483-493, 2013.
- [6] S. S. Baek., S. G. Yeoum., J. Y. Ch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dropause symptom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5, pp. 2739-2755, 2014.
- [7] E. Y. Kim, M. Y. Jang, E. Y. Jung, "The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climacteric symptoms and coping behaviors of office workers men on mid-life crisis", *Korean J Str Res*, vol. 22, no. 2, pp. 77-86, 2014.
- [8] N. C. Korten, H. C. Comijs, F. Lamers, B. W. Penninx, "Early and late onset depression i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differential symptomatology,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38, no. 3, pp. 259-267, 2012.
DOI: <http://dx.doi.org/10.1016/j.jad.2012.01.042>
- [9] H. K. Chang, B. K. Cha, "Influencing factors of climacteric women's depression.", *J Korean Acad Nurs*, vol. 33, no. 7, pp. 972-980, 200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3.33.7.972>
- [10] H. J. Kim, I. H. Song, "Depressive mood, suicidal ideation, and alcohol drinking behavior among married employe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6, pp. 1-30, 2010.
- [11] S. W. Yoo, Y. S. Kim, J. S. Noh, K. S. Oh, C. H. Kim, K. Namkoong, et al,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Anxiety and Mood*, vol. 2, no. 1, pp. 50-55, 2006.
- [12] H. S. Kim, Y. S. Chae, Y. J. Bae, "The Protective Factors of Suicide Probability in Religious Male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 42, no. 1, pp. 1-8, 2012.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1>
- [13] E. O.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 Korean Acad Nurs*, vol. 38, no. 3, pp. 465-473, 2008
- [14] Y. H. Park,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vol. 23, no. 1, pp. 111-116J,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1.111>
- [15] M. K. Kim,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1, pp. 61-83, 2012.
- [16] H. S. Yoon, S. R. Yeom,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1, pp. 233-255, 2017.
- [17] S. Y. Lee, M. He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iddle-aged men's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777-478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777>
- [18] T. S. Choi, P. H. Kark, "The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stress upon mid-life crisis of middle-aged m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3, pp. 931-944, 2011.
- [19] H. J. Jeon, "Epidemiologic studies on depression and suicid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5, pp. 322-328, 2012.
DOI: <http://dx.doi.org/10.5124/jkma.2012.55.4.322>
- [20] W. Linda, B. Marroquin, R. Miranda, "Active and passive problem 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life event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 16, pp. 183-197, 2012.
- [21] J. N. Sohn,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Focused on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3, no. 2, pp. 148-157, 2018.
DOI: <https://dx.doi.org/10.21032/jhis.2018.43.2.148>
- [22] B. G. Park, "Study on a moderating effect of psycho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mmunity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4, pp. 969-989, 2008.
- [23] A. T. Beck, M. K.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7, no. 2, pp. 343-352, 1979.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47.2.343>
- [24] K. B. Park, M. S. Shin,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20-32, 1990.
- [25] J. H. Yim, J. M. Bae, S. S. Choi, H. S. Hwang, B. Y. Huh, "The validity of modified korean translated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as instrument of stress measurement in outpatient clinic",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17, no. 1, pp. 42-53, 1996.
- [26] G. G. Zimet, N. W. Dhalem, S. G. Zimet,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no. 1, pp. 30-41, 1988.
- [27]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vol. 1, pp. :385-401, 1977.
- [28] M. J. Cho, K. H. Kim, "Diagnostic validity of the

-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vol 32, pp. 381-399, 1993.
- [29] J. H. Mo, J. H. Bae,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2, pp. 121-145, 2011.
- [30] B. S. Park, "The path analysis for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that affect the suicidality; comparison of sex and age grou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3, pp. 485-521, 2012.
- [31] S. I. Lee, "The Integrated Approach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vol. 30, no. 1, pp. 104-139, 2016.

서 영 숙(Young-Sook Seo)

[종신회원]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

정 추 영(Chu-Young Jeong)

[종신회원]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6년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보건